

3·1운동 100주년...2천여 건각들 승고한 정신 잇는다



내일 8시 30분 5·18 민주광장서 폴코스·하프코스 출발...육군 제31보병사단 등 참가

광주에 모인 2000여 건각들의 우렁찬 함성과 힘찬 발돋움으로 100년 전 3·1운동의 승고한 정신을 이어간다.

‘제54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호남 유일의 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3·1절 마라톤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자강·자주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의 100주년을 맞아 3·1절 당일 대회가 진행된다.

광주일보와 (사)전남문화,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3·1절 마라톤은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방보훈청, 육군 제31보병사단이 후원하고 광주시육상경기연맹과

마라톤 세상이 경기를 주관한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날,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대회인 만큼 2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선수등록을 마치고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629명의 장병들이 참가의사를 밝힌 육군 제31보병사단의 질주가 눈길을 끈다.

간부 277명과 용사 352명으로 구성된 31사단 장병들은 이날 3·1절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가슴에 태극문양을 새긴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대회에 입한다.

간부들은 땀 거리만큼 일정 금액을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다.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입구로 변경됐다.

건강하고 안전한 질주를 위해 약 2km~2.5km 간격으로 생수 등의 음료와 간식이 제공되고 주요 코스 요소요소에는 구급차가 배치된다.

페이스 메이커인 ‘광화문 마라톤 모임’과 레이스 페트를 요원인 ‘노란 자전거’도 마라토너들과 함께한다.

완주 후에는 동시대 생활체육학과, 운동처방학과 학생들이 나서서 참가자들의 피로를 풀어줄 예정이다.

기록에 대한 시상은 측정용 집을 이용하며 부문별 1위부터 45위까지 진행된다. 대회 현장에서는 1위~3위까지만 시상식을 치른다.

개인기록은 대회 종료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결승점에 끝난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이 제공된다.

폴코스남·여 우승자들에게는 상장·트로피와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2위는 40만원, 3위는 30만원, 4위와 5위에게는 각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하프코스 우승자는 상장과 트로피 및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2위와 3위에게는 20만원, 4위와 5위는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20인 이상의 참가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상 시상도 이뤄진다. 단체상은 참가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폴코스 2점, 하프코스 1점을 배정,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1위팀은 50만원, 2위 40만원, 3위 30만원, 4위 20만원, 5위부터 10위까지는 각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부부가 나란히 대회에 참가해 완주하면 ‘원앙부부상’이 특별 시상된다.

전체 참가자 중 53명을 사전추첨 해 행운상을, 가장 멋지게 달리기나 끝난 참가자에게는 포토제닉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2019 Dinner Show

박상민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롤케익 증정)

ShinYang Park Hotel
SIN YANG PARK HOTEL & FITNESS CLUB